

# 문화유산으로서의 선사시대 유적 활용 방안 검토 - 부여 송국리유적을 대상으로 -\*

이기성\*\*

- 
- I. 들어가며
  - II. 문화유산으로서의 선사시대 유적의 보존과 활용
  - III. 일본 선사시대 유적의 활용 프로그램 사례
  - IV. 부여 송국리유적의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 V. 맺음말
- 

## 【국문초록】

문화유산의 조사,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의 활용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매장유산이 중심이 되는 고고유적 역시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 이후 보존된 고고유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 보존,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근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고고유적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용의 원칙, 목적, 방향성 등 이론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루는 적은 연구 역시 고분 등의 역사시대 유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시대 유적과 선사시대 유적의 유구 종류와 잔존 상황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분이나 성곽, 건물지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시대 고고유적은 지표상에 가시적인 유구가 존재하고 있어, 부분적이라도 유적의 당시 모습, 경관 또는 성격 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의 선사시대 유적은 대부분 지표상에 잔존한 구조물은 없으며, 또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거나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면 유구의 보호를 위해 복토되어 지형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활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부여 송국리유적의 가치에 바탕을 둔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선사시대

---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후, 일본 선사시대 유적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송국리유적의 기존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도작농경이라는 송국리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전할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문화유산, 선사시대 유적, 보존, 활용, 송국리유적

## I. 들어가며

문화유산의 조사,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의 활용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매장유산이 중심이 되는 고고유적 역시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 이후 보존된 고고유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 복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이후 고고학계 내부에서 ‘대중고고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고고유적 또는 매장유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승규, 2015; 이한용, 2016, 2017; 이화중, 2016, 2018; 조우택·정혜림, 2015; 한국대중고고학회, 2018 등).

그러나 고고유적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용의 원칙, 목적, 방향성 등 이론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루는 연구 역시 산성이나 고분 등의 역사시대 유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시대 유적과 선사시대 유적 유구의 종류와 잔존 상황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분이나 성곽, 건물지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시대 고고유적은 지표상에 가시적인 유구가 존재하고 있어 부분적이라도 유적의 당시 모습, 경관 또는 성격 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의 선사시대 유적은 지식묘 등 극히 일부 종류의 유구를 제외한다면 지표상에 남아있는 구조물은 없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등의 유구는 모두 구덩이의 형태뿐으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거나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면 유구의 보호를 위해 복토되어 지형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활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선사시대 유적은 유구 자체를 이용한 활용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체험 활동 등의 활용 프로그램이 일반적이지만, 일부의 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선사시대 유물 만들기 등의 유사한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사시대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부여 송국리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Ⅱ. 문화유산으로서의 선사시대 유적의 보존과 활용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문화재청, 2007, 16쪽), 문화유산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육, 관광, 상품화 등, 문화유산을 보다 폭넓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문화재청, 2022, 32쪽).

문화유산은 그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유교문화재형’, ‘전통마을형’, ‘유적지형’, ‘자연명승형’, ‘근대문화재형’, ‘무형문화재형’, ‘역사인물지형’, ‘공공시설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활용의 방법은 다양하다(문화재청, 2010, 8-9쪽). 이 중 ‘유적지형’은 우리 선조의 얼과 문화가 담긴 유물·유적이 있던 장소 혹은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었던 유물·유적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를 의미하며(문화재청, 2010, 86쪽), 고고유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매장문화재가 이에 해당된다.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관광’, ‘문화 기술’, ‘문화 산업’ 등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가장 기본적인 활용 분야의 하나이다. 그 종류로는 ‘학교 문화유산 교육’, ‘시민단체 문화유산 교육’, ‘박물관 등 사회교육’,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발간’ 등이 있는데(문화재청, 2007, 36쪽), 고고유산의 경우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참여형 교육체험’, ‘답사형 교육체험’, ‘답사형 감성체험’, ‘참여형 오락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활용의 중심이다(문화재청, 2010, 86쪽).

이렇듯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복원을 전제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문화유산 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것으로(문화재청, 2010, 6쪽), 보존을 전제하지 않는 관리와 활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문화재청, 2022, 126쪽)는 점은 자명하다.

19세기 말부터 서구권에서는 건축물, 유적지, 동산문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산을 대상으로 보존과 관리, 활용 방향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72년 UNESCO 세계유산협약이 공식화된 후 보존 원칙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보존 원칙 문서가 축적되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1964년의 베니스 헌장을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한 문화유산 보존원칙의 수만 해도 100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국제 원칙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가입하는 협약(Convention)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헌장(Charter), 선언(Declaration)과 권고(Recommendation)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글에서 정리, 검토되었기에<sup>1)</sup> 개별 원칙에

1) 개별 국제 원칙에 대한 내용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 월성(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에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중 고고유적의 조사와 복원·활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2)</sup>

- 고고유적은 지표 또는 수중에 있는 구조물, 건축물, 건축군, 개발지, 동산 유물 및 다른 종류의 기념물 그리고 이들의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
- 고고유적의 발굴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교육받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
- 발굴 조사의 내용은 모두 기록화되어야 한다.
- 유적의 보존은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되며, 추정에 의한 복원이나 추측에 의한 재건은 지양해야 한다.
- 고고유적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과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국제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고고유적의 조사는 전문가가 실시해야 하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모두 기록화하고 추정에 의한 복원을 지양해야 하며, 고고유적은 과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고고유적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추정에 의한 복원을 지양’ 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원형 유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원형 유지의 원칙은 국내의 문화유산 관련 법규와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sup>3)</sup> 제3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고 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sup>4)</sup> 제4조에서는 ‘①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 제5조에서는 ‘① 보존을 위

2) 다음의 국제 원칙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 ① ‘고고학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 원칙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
  - ②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헌장(베니스 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The Venice Charter 1964)’
  - ③ ‘고고 유산 보호와 관리에 대한 헌장(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1990)’
  - ④ ‘고고 유산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개정)(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Revised, 1992)’
  - ⑤ ‘공공 고고 유적지의 관리를 위한 살랄라 지침(Salalah Guide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aeological Sites(2017)’
  - ⑥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977년 제정, 2021 개정)’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4)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2009. 9. 3. 제정.

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 유지의 원칙은 보존뿐 아니라 선사시대 유적의 활용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선사시대 유적 활용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문화재청, 2012, 96쪽).

- 활용은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선사유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성격, 위치와 경관구조 등 타 문화유산과 다른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선사유적이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발견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정에 의한 복원을 지양하며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적의 '원형 유지'와 유적이 가진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활용'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건축물 등의 문화유산과는 다른 성격의 고고유산, 특히 선사시대 유적에는 그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선사시대는 문헌자료가 없는 시대를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 구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를 의미한다.<sup>5)</sup> 선사시대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생활유적, 무덤유적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되며, 생활유적에는 구석기시대 동굴유적과 한데유적,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의 집터와 무덤, 바위그림, 선돌 그리고 패총 등이 있다(문화재청, 2012, 10쪽). 선사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구들은 대부분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고 상부에 구조물을 조성했을 것이지만, 현재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땅을 팠던 흔적뿐으로 상부의 구조물을 포함한 당시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렇듯 매우 단편적인 흔적만이 남겨져 있는 선사시대 유적의 정비, 복원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지식묘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구나 유물이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로 구성된 선사시대 유적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거지, 무덤, 고상창고 등은 그 상부구조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문자 자료가 없는 시대의 유적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충분한 고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범령, 지침, 현장 등에서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절대로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만약 충분한 고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굴된 상황 그대로의 '원형'만을 유지한다면 선사시대 유적의

5) 한국고고학에서 선사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까지를 의미하지만, 초기철기시대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시대구분으로 현재 국가유산의 시대구분에서는 철기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경우는 대부분이 구덩이만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선사시대 유적은 이러한 한계 때문에 흔히 유적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구의 실제 모습을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사시대 유적과는 달리 선사시대의 모습을 제한적으로만 보여주게 된다. 그렇기에 즉 선사시대 유적의 ‘원형 유지’와 ‘활용’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구뿐 아니라 당시의 지형, 식생 등을 함께 복원하고 다양한 전시 기법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사시대 유적의 성격상, 유적의 활용은 흔히 주거지 복원이나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한 역사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출토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체험·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사시대 유적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불 피우기’, ‘곡옥 만들기’, ‘활쏘기’ 등으로, 개개의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선사시대 유적의 활용은 해당 유적에서 확인된 특징적인 유구나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선사시대 유적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공주 석장리유적<sup>6)</sup>이나 연천 전곡리유적,<sup>7)</sup> 시흥 오이도 패총,<sup>8)</sup>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sup>9)</sup> 등 유적의 시대적 특징 등에 초점을 맞춘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문화유산으로서의 고고유적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선사시대 유적의 특성에 맞추어 역사적 가치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활용 방안의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고고유적, 특히 선사시대 유적과는 잔존 상황이 전혀 다른 선사시대 유적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가 중심을 이루는 고고유적이라는 특성, 가시적인 유구가 거의 없으며 출토유물 역시 토기, 석기 등에 불과하다는 선사시대 유적의 잔존 상황, 해당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사(地域史)에서 차지하는 가치 및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일본 시즈오카시(静岡市) 도로유적(登呂遺跡)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6) 공주 석장리유적 <https://www.gongju.go.kr/sjnmuseum/>

7) 연천 전곡리유적 <https://www.yeoncheon.go.kr/seonsa/index.do>

8) 시흥 오이도패총 <https://oidomuseum.siheung.go.kr/>

9)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https://www.jinju.go.kr/bronze.web>

### Ⅲ. 일본 선사시대 유적의 활용 프로그램 사례

도로유적은 시즈오카평야(静岡平野) 남부에 위치한 야요이시대 취락유적으로, 1943년 군수 공장 건설 시 우연히 유적이 발견된 후 1947~1950년, 1965년, 2006~2012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야요이시대의 마을과 수전이 함께 발견된 일본 최초의 유적으로, 야요이시대가 도작농경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한 첫 번째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로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일본고고학협회(日本考古学協会)가 발족되는 등, 고고학의 선구적 의미를 가진 유적이라는 점이 평가받아 1952년 야요이시대 유적으로는 최초로 특별사적(特別史跡)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51년 1호 복원 주거지 건설을 시작으로 유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까지 사적 범위 전체에 대한 1차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 후 시설의 노후화 및 도로유적의 지명도 감소에 따라 1990년대 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복원 정비 준비를 위해 1999~2003년까지 5년간 유적 재발굴을 실시하였다. 이후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2006~2011년까지 재정비사업이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静岡市教育委員会, 2012). 도로유적은 일본 사적 정비의 선구적인 사례로서, 1960년대 이후 일본 각지 유적의 복원·정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도로유적의 발굴 성과를 기준으로 야요이시대 농경취락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시노하라 카즈히로, 2024, 48쪽).

도로유적은 현재 59,900㎡ 면적의 유적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도로박물관(登呂博物館)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들 중, 동일 시기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4동, 고상창고 2동, 제전 1동, 수전 등이 복원되어 있다[사진 1~4].



[사진 1] 도로유적 전경(출처 : 도로유적 홈페이지)



[사진 2] 도로박물관 전경(필자 촬영)



[사진 3] 도로유적 복원 주거지(필자 촬영)



[사진 4] 도로유적 복원 수전(필자 촬영)

도로유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취락과 논이 함께 발견된 야요이시대의 농경취락’ 이라는 점으로, 활용에 있어서는 ‘체험학습의 중시’를 가장 중요한 방침으로 삼아 단순히 전시 또는 복원된 유구를 보는 것뿐 아니라 체험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로유적의 정비, 활용에는 ① 야외체험 지도원 배

치, ② 체험학습 지원시설 설치, ③ 복원 건물의 활용 등의 특징이 있다. 이 중 특기할 것은 ③ 복원 건물의 활용으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상부 구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복원이 일반적이며, 그 부재는 유구 내에서 출토되는 목탄 등을 근거로 형태, 수종 등을 선정한다. 목재 등으로 복원된 주거지의 경우 화재 등의 위험으로 복원 주거지 내부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지 않으며, 흔히 단순 관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도로유적의 경우는 복원 주거지 내부에서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거지 1기를 건축기준법에 지정된 ‘지붕 및 외벽 불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골조로 복원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카지야마 마사히로, 2024, 88쪽). 이것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도로유적에서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불 피우기 체험이나 토기 맞추기, 야요이시대 의상 체험 등 다른 야요이시대의 유적 박물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도 있으나, ‘야요이시대의 농경 취락’이라는 도로유적의 가치를 일반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작 농경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다.

도로유적은 발굴조사에서 약 80,000㎡ 정도 면적의 수전이 확인되었는데, 유적의 정비 과정에서 그 중 21,000㎡의 면적에 걸쳐 수전을 복원하였다. 실제 조사된 야요이시대 수전의 규모 등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중앙 수로, 대형 논 뚝, 소형 논 뚝 등을 동일한 위치에 복원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벼 등의 작물을 심는 등 수전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静岡市教育委員会, 2012, 16쪽). 다만 유적의 다른 부분은 유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1m 두께로 성토하였으나, 수전의 경우 유적 공원 내 비가 올 경우 물이 수전으로 고일 수 있도록 복원의 최저 한계인 30cm만 복토하였다(静岡市教育委員会, 2012, 64쪽).

이렇게 복원된 수전을 이용하여 야요이시대 농경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전과 관련된 활용 프로그램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사의 전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연간 프로그램과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도로유적 복원 수전 활용 사업(단체수전)(登呂遺跡復元水田活用事業(団体水田))」과 「시민 수전 ‘도로유적의 논에서 적미 재배하기 체험’ (市民水田「登呂遺跡の田んぼで赤米づくり体験)」」 등이 있다. 「도로유적 복원 수전 활용 사업(단체수전)」은 유적 내에 복원된 논을 시민 단체·학교 단체 등에 빌려주어 쌀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야요이시대의 경관을 복원·유지하여 논에서 여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 수전 ‘도로유적의 논에서 적미 재배하기 체험」」은 개인을 대상으로 소구획 논을 대여해 주어 땅 갈기, 모내기, 탈곡, 벼 베기까지의 쌀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두 프로그램 모두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다(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24).

일회성 체험으로는 모내기체험(5-6월)과 논 생물 관찰 체험(7월), 진흙 어린이 공원(ドロ子パーク)(8월), 빗자루 만들기(9월), 적미(赤米) 수확 체험(10월), 반월형석도 만들기(10월) 등으로 농경과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복원 수전을 이용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모내기 체험은 복원 수전에 벼의 모를 심거나 논에서 나막신을 신는 체험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며, 논 생물 관찰 체험은 복원 수전에서 생물을 관찰하는 체험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시즈오카시에 위치한 도코하대학(常葉大学)의 교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지도한다. 진흙 어린이 공원은 농사 체험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도로유적의 논에 익숙해지도록 논에서 진흙 놀이를 하는 것이며, 빗자루 만들기는 탈곡 후의 짚으로 빗자루를 만드는 체험이다. 적미 수확 체험은 반월형석도를 사용한 수확과 탈곡 등을 체험하는 것으로, 수확에 사용되는 반월형석도 역시 석기 제작 체험을 통해 실제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이렇듯 복원 수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복원 수전의 30% 정도만 이용되었지만, 현재는 60% 정도까지 이용 면적이 확대되었다(카지야마 마사히로, 2024, 92쪽)[사진 5·6, 표 1].

[표 1]. 도로유적 활용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19~2024)

	비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로유적 복원 수전 활용 사업(단체수전)	무료	15단체	16단체	15단체	16단체	15단체	14단체
시민 수전 「도로유적의 논에서 적미 재배하기 체험」	3,000엔	25팀	27팀	27팀	30팀	37팀	36팀
모내기 체험	100엔	197	154	178	353	416	438
논 생물 관찰 체험	100엔	19	37	42	8		10
진흙 어린이 공원	무료			1035	299	434	509
빗자루 만들기	300엔				10	10	10
수확 체험	100엔	136	283	688	856	507	394
석기 만들기	100엔	284		251	310	321	229



[사진 5] 도로유적 모내기 체험(출처 : 도로유적 홈페이지)



[사진 6] 도로유적 수확 체험(출처 : 도로유적 홈페이지)

위에서 설명한 도로유적의 수전 활용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도로유적 수전 활용의 특징은 실험고고학 연구도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역에 위치한 시즈오카대학(静岡大学)과 연계하여 복원 수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고고학 연구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모내기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계화 이전의 농경 스케줄을 그대로 재현하여 경작을 진행하는 것이다. 도로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농경구를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수종의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실제로 사용하여 목기의 기능과 내구성을 검토하거나 취락 규모와 노동력의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篠原和大, 2020, 2021; 시노하라, 2024, 59쪽). 복원 수전이 유적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활용 프로그램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의 실증적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로유적의 활용 프로그램은 고고학 조사 결과로 밝혀진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체험학습에 적절하게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작 농경을 중심으로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인 시즈오카시 문화재과 및 도로박물관뿐 아니라 지역에 소재한 대학인 도쿄하대학, 시즈오카대학의 교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국리유적의 활용 사업에도 청동기시대의 문화 양상 및 송국리유적의 조사 성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과 지역 대학의 협력을 통한 유적 활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부여 송국리유적의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 1. 송국리유적의 가치

남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부여 송국리유적은 1974년 비파형동검, 동착, 관옥, 곡옥, 마제석검, 마제석촉이 부장된 석관묘에 대한 수습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김영배·안승주, 1975), 그 이듬 해인 1975년부터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초기부터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6년 사적 제249호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27차례 이상의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100동 이상의 주거지와 함께 수혈, 굴립주건물지, 목주열, 무덤 등 다양한 종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송국리유적이 도작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대규모 마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외 송국리유적에서는 다량의 탄화미가 출토되어 한반도 청동기시대에 도작농경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유적에서 논 등의 경작유구나 탄화미 등이 확인되었으나, 청동기시대 도작농경의 실증적 증거는 1970년대 송국리유적과 혼암리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후 송국리유적은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더불어 다량의 탄화미가 발굴되어 당시 송국리취락의 경제적 기반이 도작농경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송국리유적의 가치는 ‘100여 기 이상의 집자리, 수혈, 방 어시설, 무덤, 목주열 등이 확인된 당시 도작농경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대규모 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며 부여 송국리유적을 표지로 하는 송국리 문화는 한반도 남부로 확산되어 떨리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어 일본 야요이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여 송국리유적은 동북아시아에서 도작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문화 확산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기성, 2021).

이렇듯 국내에서 선사시대 유적으로 535,108㎡에 달하는 매우 넓은 면적이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학술적 목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며, 송국리유적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송국리유적의 보존, 복원, 활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의 10% 정도의 범위만이 조사되어 송국리유적의 정확한 범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김경택, 2023; 이기성, 2021), 송국리유적의 야외 유구 복원 현황에 대해 유적의 장소성, 진정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재현된 유구들로 송국리유적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황재훈, 2023)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보존, 정비와 관련된 문제점 외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송국리유적의 홍보와 활용에 관한 것이다. 송국리유적은 상대적으로 부여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우며 현재 5기 정도의 복원 주거지와 소규모 전시관이 있을 뿐이다. 전시관에는 실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닌 복제품만이 전시되어 있어 유적의 실제적 가치를 그대로 전해 주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송국리유적 활용 사업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

## 2. 기존의 송국리유적 활용 사업

송국리유적은 1974년 발견 이후 다음 해인 197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유적 자체의 정비, 복원은 2003년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종합정비 기본계획(부여군, 2003)』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정비 복원 또는 전시관람시설 관련 기본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부여군, 2003, 2005, 2015, 1017, 2020, 2022, 2023a, 2023b).

종합정비계획(2003년, 2005년 변경)을 바탕으로 2004년 임시자료관의 건립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목책 및 고인돌 등이 설치되고 유적 공원 조성을 위해 관목류 등이 조성되고, 이후 2008년의 주거지 복원 정비 등, 몇 차례의 정비 사업이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송국리유적의 정비, 복원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국리유적의 진입부에는 자료관과 선사체험관이 건립되어 있다(사진 7, 8). 자료관에는 유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적 전체의 모형과 복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2016년에 건립된 선사체험관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할 활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유구가 복원되어 있는 지점은 기존에 발굴조사가 완료된 구릉 정상부로, 원형주거지 2기, 방형주거지 3기와 대형 건물지 부지가 정비되어 있다. 또한 유구 재현 지역의 남쪽으로 분묘군이 복원되어 있다.

현재 복원 주거지는 총 5기로, 상부 구조까지 복원되어 있는 것 3기[사진 9]와 수혈구조만 복원되어 있는 것 2기이다[사진 10]. 이 중 주거지의 위치 자체는 실제 발굴된 지점을 복토하고 상부에 복원한 것으로, 복토·보존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부여군 종합정비계획, 2023, 110쪽),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부구조의 복원은 일반인에게 움집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굴 조사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거지의 출입구 복원, 원형 주거지의 기둥 구조 등은 조사 성과를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형건물지는 위치만이 잔디로 정비되어 있어 규모나 성격 등을 전혀 알 수 없다[사진 11]. 분묘군의 경우 현재 묘역에서 확인된 총 7기 모두가 그림으로 재현되어 있는데, 역시 무덤의 형태나 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사진 12].

이러한 송국리유적의 정비, 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부여군, 2023b; 황재훈, 2022 등) 향후 복원 대상 주거지의 선정, 송국리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목주열의 복원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 7] 송국리유적 전시관 전경(필자 촬영)



[사진 8] 송국리유적 선사체험관 전경(필자 촬영)



[사진 9] 송국리유적 복원 원형주거지(필자 촬영)



[사진 10] 송국리유적 복원 원형주거지 수혈(필자 촬영)



[사진 11] 송국리유적 대형건물지 부지 정비 상황(필자 촬영)



[사진 12] 송국리유적 묘역 복원 전경(필자 촬영)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실시되는 활용 사업 역시 활성화되어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인 활용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으며, 매년 1회 개최되는 청동기 축제뿐이다. ‘부여 송국리 청동기축제’는 송국리유적이 위치한 초촌면 주민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는 축제로, 송국리유적의 활용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개최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축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송국리유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청동기 식문화체험, 청동기 문화체험뿐이며 이 역시 송국리 유적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외의 프로그램은 떡메치기, 고사리꺾기, 송국리 둘레길 걷기 등으로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사진 13].<sup>10)</sup>



[사진 13] 부여 송국리축제 팸플릿

그 외 2023년부터 송국리유적 선사체험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예 프로그램<sup>11)</su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부여 송국리, 청동기문화를 꽃피우다’, 2024년에는 ‘부여 송국리, 청동기 마을 미식을 맛보다’ 등이 운영되면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10) 제6회 부여송국리유적 청동기 축제 <https://www.songguk-baf.or.kr/>

11) 부여군, 청동기시대 대표 ‘송국리유적’에서 배우는 도예의 매력 [https://www.buayo.go.kr/\\_prog/\\_board/?mode=V&no=TXI0LRrybz9LjBkaLmb79Q&code=news\\_07&site\\_dvs\\_cd=kr&menu\\_dvs\\_cd=](https://www.buayo.go.kr/_prog/_board/?mode=V&no=TXI0LRrybz9LjBkaLmb79Q&code=news_07&site_dvs_cd=kr&menu_dvs_cd=)

[표 2] 2024년도 송국리유적 문화관 정규교육과정

과정 구분	총시간	학습내용	일정표
기초과정	45시간	- 도자 이론1(정의, 역사, 종류, 재료)	붙임 2.
		- 소지조합 및 작업장 관리	
		- 제작기법1(손성형, 판성형)	
		- 물레성형1 및 정형1	
		- 도자장식1	
실습과정	45시간	- 도자이론2(공예사, 안료, 유약 등)	붙임 3.
		- 제작기법2(석고성형 등)	
		- 물레성형2 및 정형2	
		- 도자장식2	
		- 도자가마와 소성	
전문과정	45시간	- 도자기공예기능사 이론시험	붙임 4.
		- 도자기공예기능사 모의 실기시험	

특히 송국리유적 선사체험관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정규교육과정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인해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 과정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도자기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송국리유적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와는 무관하여 이 역시 송국리유적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송국리유적 축제나 정규교육 과정 등은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 사업이 송국리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얼마나 일반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다음에서는 송국리유적이 가진 여러 가치 중 선사시대의 도작 농경에 초점을 맞춘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송국리유적 재현 수전을 활용한 선사 농경 체험

앞에서 설명했듯이 송국리유적과 같은 선사시대 유적은 가시적인 유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역시 복제품으로 활용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송국리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중 선사시대의 도작농경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송국리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은 도작 농경이었다는 점이 실제 탄화미의 출토로 밝혀졌으며, 또한 쌀 농사의 기술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확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송국리유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송국리유적의 활용 프로그램 역시 도작농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사시대 유적이 정비·복원되어 유적 공원 또는 박물관 등의 시설이 있는

곳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시흥 오이도 신석기 패총,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경제, 특히 농경에 대해서는 농경 관련 도구, 예를 들면 반월형석도 등의 전시에 불과하여, 선사시대 도작 농경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청동기시대 전문 박물관인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경우 역시, 이전에는 대평유적에서 조사된 밭을 소규모로 재현해 놓았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이렇듯 한국의 선사시대유적 활용 사업 중에는 실제 논 또는 밭에서의 농경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탄화미나 논 등의 농경 관련 유구가 확인된 유적 중, 유구를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정비·복원되어 있는 유적이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청동기시대 수전의 조성 방식, 선사시대 농경 도구의 제작 등, 활용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경의 경우, 다른 체험 활동과 달리 연중 내내 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수전을 복원, 조성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선사시대 농경과 관련된 활용 사업이 시작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송국리유적은 이러한 점에서 도작농경을 이용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우선 송국리유적은 매우 넓은 면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수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송국리유적과 관련된 수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일본 시즈오카시 도로유적의 농경 활용 프로그램은 큰 참고가 된다. 일본은 도로유적 외에도 많은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수전을 조성하여 체험 활동 등의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실제 유적에서 발견·조사된 수전의 위치에 복토 후 복원 수전을 조성하고, 일반인 대상 체험 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후쿠오카시(福岡市) 이타즈케유적(板付遺跡)<sup>12)</sup> 등 여러 곳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수전이 발견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유적의 규모와 무관하게 유적의 성격 또는 조사 지점의 차이 등에 의해서 수전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현재 정비·복원되어 있는 대규모의 야요이시대 유적 중에는 수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전을 재현하여 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사가현(佐賀県) 요시노가리유적(吉野ヶ里遺跡)<sup>13)</sup>의 경우, 일본 야요이시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취락유적이지만 유적 내에서 수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비된 유적 범위 내에 야요이시대 수전을 재현하여 일반인 대상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수확된 고대미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중부지역(中部地域)의 대표적인 야요이시대유적인 아이치현(愛知県) 아사히유적(朝日遺跡)<sup>14)</sup> 역시 유적 내에서 수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야요이시대 수전

12) 후쿠오카시 이타즈케 유적 홈페이지

[https://bunkazai.city.fukuoka.lg.jp/cultural\\_properties/detail/430](https://bunkazai.city.fukuoka.lg.jp/cultural_properties/detail/430)

13) 사가현 요시노가리유적 홈페이지 <https://www.yoshinogari.jp/>

을 재현하여 일반인 대상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적 내에서 수전이 실제로 확인되었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야요이시대에 도작농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유적 내에서 수전이 발견된 경우 복토 후 그 지점에 복원 수전을 조성하고, 유적 내에서 수전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구가 없는 지점에 수전을 재현하여 체험 활동 또는 실험고고학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농경 도구는 선사시대 목제 도구를 사용하고 농사 일정은 과거의 절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송국리유적의 경우, 사적 범위 내 곡간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수 차례 실시되었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9). 이 곡간지는 기존에 계단식 논이 조성되어 있던 곳으로 청동기시대 수전 유구의 존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논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지점은 사적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어떠한 유구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수전을 재현하기에 적합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현 수전을 활용한 선사 농경 체험 사업은 ‘선사시대 농경’이라는 송국리유적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선사유적의 체험 활동과는 차별되는 유일한 선사시대 농경 체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복원 주거지뿐만 아니라 송국리유적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뿐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체험 활동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 프로그램의 예시가 [표 3]이다.

[표 3] 송국리유적의 농경 활용 프로그램(안)

기간	제목	내용
3월	농경 도구 만들기 체험	논갈이 체험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목제 팽이 등 만들기
4월	논갈이 체험	3월에 제작한 선사시대 목제 도구로 논갈이 체험
5월	반월형 석도 만들기 체험	가을에 수확할 때 사용할 반월형석도 만들기
6월	모내기 체험	재현 수전에서의 모내기 체험
7월	토기 만들기	가을에 수확한 쌀을 조리할 토기 만들기
8월	김매기 체험	재현 수전에서의 김매기 체험
9월	토기 소성하기	7월에 만든 토기 소성하기
10월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재현 수전에서의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11월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재현 수전에서의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12월	토기로 밥 짓기 체험	7월에 소성한 토기로 수확한 쌀을 이용해 밥 짓기 체험

14) 아이치현 아사히유적 홈페이지 <https://aichi-asahi.jp/>

일반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 수전 활용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니라 농경 절기에 맞추어 1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경 이외의 송국리유적의 문화 요소들, 예를 들어 토기, 목기, 석기 등의 제작, 사용 역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농경과 직접 관련된 체험은 4월의 논갈이, 6월의 모내기, 8월의 김매기, 10월·11월의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등을 운영하며, 그 사이에는 농사에 사용되는 또는 관련된 도구 제작 체험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3월의 농경 도구 만들기에서는 실제 청동기시대 농경에 사용되었던 목제 쟁이, 고무래 등의 제작 체험을 실시한다. 물론 송국리유적에서는 목제 쟁이 등의 목제 농경구가 출토되지 않았으며,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목기 자체의 수도 매우 적어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목제 농공구나 일본의 목제 농경구에 대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이기성, 2019). 이렇게 3월에 제작한 목제 도구는 4월의 논갈이 체험 등에 사용한다. 5월에는 수확에 사용되는 반월형석도 제작 체험을 실시한다. 반월형석도 제작 체험은 다른 유적 박물관 등에서도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다른 유적에서의 체험은 대부분 쉽게 마연이 가능한 재질로 석도를 제작한다. 그러나 송국리유적에서의 반월형석도 제작 체험은 송국리유적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실제 송국리유적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의 석재인 흑색 세일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작된 반월형석도는 10월과 11월의 벼 베기체험에 사용한다.

7월의 토기 제작과 토기 소성은 이후 12월에 수확한 쌀을 이용한 밥 짓기 체험에 사용한다. 지금도 송국리유적에서 도예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토기 제작, 소성 체험은 실제 송국리유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와 동일한 태토,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소성 역시 야외소성을 실시하여 가능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의 재현을 목표로 한다.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송국리유적이 가진 선사시대의 도작농경이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일반인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순히 도작 농경의 체험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목제 농경구, 반월형석도, 토기 등의 제작 체험은 도작 농경뿐 아니라 청동기시대 송국리 마을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V. 맺음말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이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 등의 문화유산과는 다른 성격의 고고유적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용의 원칙, 목적, 방향성 등 이론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의 전제인 ‘원형 유지’의 원칙이 고고유적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표상에 남아있는 구조

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선사시대 유적의 경우, 추정에 의한 복원을 지양하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그대로의 원형을 유지한다면 대부분 구덩이의 형태뿐으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선사시대 유적이 보존될 경우 유적 공원이 조성되거나 전시실 등이 건립되고 체험 활동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사시대 유적의 활용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유적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으로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농경이라는 부여 송국리유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사시대 농경 관련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용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사시대의 도작 농경뿐 아니라 송국리 마을의 생활 모습, 더 나아가서는 선사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24.10.31,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 【참고문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 월성』.
- 김경택, 2023, 「부여 송국리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 연구」, 『건지인문학』36.
- 김경택·주동훈, 2021, 「부여 송국리 유적 조사 성과와 세계유산적 가치」, 『부여 송국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
- 김영배·안승주, 1975, 「부여 송국리 요령식동검출토 석관묘」, 『백제문화』7·8.
-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 문화재청, 2010,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 문화재청, 2011, 『고분의 보존관리 매뉴얼』.
- 문화재청, 2012, 『선사유적의 보존관리 매뉴얼』.
-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
- 박승규, 2015, 「고고학 발굴과 지역사회 -대중고고학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제39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 부여군, 2003, 『송국리 선사취락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 부여군, 2005,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 부여군, 2015, 『부여 송국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 부여군, 2017, 『부여 송국리유적 선사자료센터 건립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부여군, 2020, 『부여 송국리 유적 ‘유물보존관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부여군, 2022, 『부여 송국리유적 초입부 정비 계획 수립 용역』.
- 부여군, 2023a, 『부여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기본 구상』.
- 부여군, 2023b, 『부여 송국리유적 종합 정비 계획』.
- 시노하라 카즈히로, 2024, 「도로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 -도로유적을 활용한 실험고고학의 전망-」, 『부여 송국리유적·시즈오카 도로유적의 조사 성과와 활용』.
- 신희권, 2014, 「고고유적 활용 방안 연구」, 『야외고고학』19.
- 신희권, 2021,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와 사적의 지정·관리」, 『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학술대회 자료집』.
- 이기성, 2019, 「한일 선사시대 도구 조성 검토 - 목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70.
- 이기성, 2021, 「부여 송국리유적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호서고고학』50.
- 이기성, 2024, 「송국리유적과 도로유적의 교류방안에 대하여」, 『부여 송국리유적·시즈오카 도로유적의 조사 성과와 활용』.
- 이한용, 2016, 「대중고고학과 유적박물관」, 『제4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 이한용, 2017, 「국내의 문화유적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대중고고학의 가능성과 역할」, 『제41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 이화중, 2016, 「Public Archaeology - 대중고고학, 공공고고학?」, 『제4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

회 발표문」.

이화중, 2018, 「축제와 체험을 통한 유적의 가치의 전달」, 『제42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임보아·김은석, 2018, 「선사유적 박물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분석」, 『초등교육연구』22.

조우택·정혜림, 2015, 「고고학의 대중화를 위한 유적박물관의 역할」, 『제39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카지야마 마사히로, 2024, 「도로유적의 정비와 활용 -한·일 유적간 교류를 목표로-」, 『부여 송국리유적·시즈오카 도로유적의 조사 성과와 활용』.

한국대중고고학회, 2018, 『한국 대중고고학 개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9, 『송국리 X II』.

황재훈, 2022,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 현황과 활용 방안」, 『문화재』55-2.

篠原和大, 2020, 「登呂遺跡を活用した日本列島初期農耕文化についての実験考古学的研究」, 『人類誌集報』14.

篠原和大, 2021, 「弥生水稻農耕集落モデルの再構築-登呂遺跡の実験考古学」, 『人類誌集報』15.

静岡市教育委員会, 2012, 『特別史跡登呂遺跡 再整備事業報告』.

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19, 『館報 第25号』.

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20, 『館報 第26号』.

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21, 『館報 第27号』.

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22, 『館報 第28号』.

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23, 『館報 第29号』.

静岡市立登呂博物館, 2024, 『館報 第30号』.

공주 석장리유적 <https://www.gongju.go.kr/sjnmuseum/>

시흥 오이도패총 <https://oidomuseum.siheung.go.kr/>

연천 전곡리유적 <https://www.yeoncheon.go.kr/seonsa/index.do>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https://www.jinju.go.kr/bronze.web>

사가현 요시노가리유적 <https://www.yoshinogari.jp/>

시즈오카시 도로유적 <https://www.shizuoka-toromuseum.jp/>

아이치현 아사히유적 <https://aichi-asahi.jp/>

후쿠오카시 이타즈케유적 [https://bunkazai.city.fukuoka.lg.jp/cultural\\_properties/detail/430](https://bunkazai.city.fukuoka.lg.jp/cultural_properties/detail/430)

**【Abstract】**

## A Study about the utilization of prehistoric sites as cultural heritage

Yi, Ki-s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Unlike before the 2000s, when the focus was on the investig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has come to the fore as a major issue since the 2000s. Such discussions are also the case with archaeological sites centered on buried heritage, and various discussions have recently been attempted on how to preserve and utilize archaeological sites preserved after excavation.

However, discussions on the utiliz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are still primarily theoretical, dealing with the principles, purpose, and directionality of utilization, and a few studies that deal with concrete utilization plans also target archaeological sites from the historical period such as ancient tombs. This may be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relics and their remaining situations between archaeological sites from the historical period and prehistoric sites. In the case of archaeological sites from the historical period represented by ancient tombs, castles, building sites, etc., visible relics exist on the ground surface, so that the appearances, landscapes, or natures of the sites at the time can be inferred, although only partially. However, most prehistoric sites from the Paleolithic Age to the Early Iron Age have no structures remaining on the ground surface, and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ir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 is recognized after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is completed and thus they are preserved or designated as historic sites, they are generally covered with soil to protect the relics, leaving only the terrains so that the scope of utilization of them cannot but be very limited.

In this paper,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Songguk-ri site in Buyeo is examined. First,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 for prehistoric sites are theoretically reviewed, and thereafter, the cases of utilization of prehistoric sites in Japan are examined. Then, the existing case of utilization of the Songguk-ri site in Buyeo is examined, and thereafter, a utilization plan that can take advantage of rice farming,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ongguk-ri site, is proposed.

**Keywords** : Cultural heritage, Prehistoric site, Preservation, Utilization, Songguk-ri site